☞ 17면에서 계속

내 마음 한생각이 바로 금·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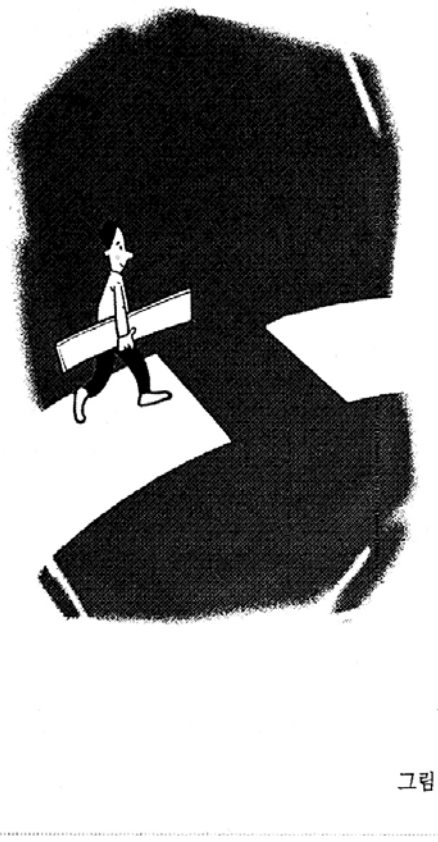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단전호흡을 해서 얻느니, 기를 어디서 주워 모아다가 넣어서 내가 살아야 하느니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구요, 모두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기는 내가 만들어서 사는 것이지, 한생각이면 기가 나오고 한생각이면 기가 죽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엉뚱한 생각입니까? 선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단전호흡을 하다가 병이 들린 사람들이 수가 없어요. 명상하다가 병이 걸린 사람이 수가 없구요.

왜 병이 드느냐 하면은 모두 타의에서 구하거든요. 싹이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에다가 모든 거를 일임해야 도를 이루고 자기 마음을 발전시키는데, 싹이 딴 데를 보고서, '아이고! 나 좀 통하게 해주시오! 나 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연방 틀어끼고 앉아 가지고 상대를 믿고 돌아가니 영령들이,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이 어디서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또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는 그 한 몸 속에 둘이 사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뭘 좀 하려면 이쪽에서 튕기고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미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정신병이라고 병원에 데리고 가죠. 그게 어디가 어떻게 돼서 그런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마음으로 병이 난 거는 마음으로 다스려야죠. 그래서 임제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의 주인이 없다면 빈 집이기 때문에 이 영계 저 영계, 이 혼백 저 혼백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집만 망가지고 네가 맘대로 살수 없다고 하신 거죠.

날더러 만날 말을 하래서 하기는 하는데요, 날더러 말만 하래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을 책으로만 보고 이러는 게 도를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못났든 잘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다니는 게 어떤 놈으로 인해서 내가 걸어다니는가를 한번 진심으로 생각해 볼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걸어다니는 자체도 걸머지고 다니지는 않겠지요. 여러분이 지금 걸머지고 다닙니까? 그냥 놔버리고 다니죠. 살아가는 것도 놔버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고정됨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걸 보면 저걸 보게 되고, 이걸 들으면 저걸 듣게 되고, 저기 가게 되면 여기 가게 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걸 먹으면 저걸 먹게 되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까닭에 고정된 사실이 하나도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질 않아요. 여러분은 걸레를 빨아서 쭉 짜면 아무 데나 팽개칠 수 있는데 만약에 금이라면 장 속에 갖다 넣느라고 야단이나죠. 걸레 팽개치듯 그렇게, 금이 있다 할지라도 장 속에 넣긴 하되 걸레 짜서 버리듯이 착을 두지 말라 이 소립니다. 모든 게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는 관리인일 뿐이고 바로 생명들의 집합소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한생각하는 게 금입니다. 보배고요.

한생각에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제주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큰 구렁이가 똘똘 틀고선 집 앞에 와서 항상 옆에 와서 앉아서 계란을 하나씩 갖다가 툭툭 깨뜨려 먹더랍니다. 하하하. 그래서 말입니다. 아, 이놈의 구렁이가 왜 우리 귀한, 예전만 해도 얼마나 계란이 귀했습니까? 지금은 흔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도 못 먹는 거를 구렁이가 갖다가 먹나, 얼마나 얄미웠던지 저걸 죽여야지 하고 밤에 잠을 자려니까, 이건 어느 스님의 얘기입니다.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아마 삼매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구렁이가 턱 일어서는데 보니까 자기 친척집 할아버지더랍니다. 할아버지가 4. 3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그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래, 네가 얼른 이 옷을 좀 벗겨다오." 이러시면서 "내가 옷 벗기 위해서 네 눈에 이렇게 띄고 있지 않니?"하더랍니다. "제발 좀 이 옷을 벗어야 할 텐데 내가 자유로이 옷을 벗을 수는 없구나." 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죽으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사흘이 지난 후에 돌을 가지고 그냥 죽였답니다. 그런데 죽이던 날 저녁 꿈에 할아버지가 또 나타나서 "내 모습을 이렇게 벗겨줘서 이제는 환생을 하느니라."하면서 그냥 긍중으로 사인교를 타고 가시더랍니다.

이러한 일도 있듯이, 꿈과 생시가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꿈도 그렇게 꾸어지고 꿈에 생각을 하는 것이 생시에 '주인공은 바로 내 뿌리야. 한마음이 뭉쳐진 뿌리는 바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내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 뿌리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맡겨놓으면 원자에서 분자가 나가고 입자가 돼서 화하듯이, 그러는 것입니다.

> 내 마음의 주인이 없다면
> 빈집이기 때문에
> 이 영계·저 혼백이
>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 결국 집만 망가지고
>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의심하고 자기를 자기가 못 믿지 마시고 관법(觀法)을 열심히 배우셔서 실천해 보실 때에 체험도 하시고 성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체가 바로 우스워집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우습게 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한 쪼가리도 스승 아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주 천지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일체 만물만생은 다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성 내면세계에 마음을 통하시면요, 우주하고도 통하고 이 세상에 모두 가설이 돼서 통하고 보고 알고 합니다.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게 도지, 물질을 보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을 하나 켜려면 전기 줄과 전기 줄이 맞들어가야 불이 켜지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보배인 것입니다. 진짜 보배인 것입니다.

컵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길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이것이 뭣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를 다 상세히 알아 맞춰도, 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도 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도라고 하지 말라, 오신통을 도라고 하지 말라, 오신통에서 벗어나서 오신통을 굴릴 줄 알아야만이 도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과학자들이 이거를 다 알아내고 끝도 없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다 안다고 해도, 만약에 비행기가 우리나라를 산산조각을 낸다고 합시다. 그래서 삽시간에 온다, 지금 이북에서도 난리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송국 사장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이나 당했지 두 번 당하지 않는다.' 는 결론입니다! 천만에 말씀이지요. 수소폭탄으로 이 세상을 다 죽인다, 수소폭탄이 제일 위대하다 하고 해놨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소폭탄이 있기 이전이 있다.' 어때요? 그 핵을 만들은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이 되고 그 핵이 내가 된다면 자기가 자기 죽이는 일이 없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먹이 이 주먹을 칠 수 있겠습니까? 제 주먹이 제 주먹을 칠 수 있겠느냐구요! 몰랐을 때 한 번은, 여러분과 똑같이 말입니다. 한 번은 당했을지언정 두 번 당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자1: 조금 전 말씀 중에 사람은 윤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유가에서는 제사를 4대까지 지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제사를 모시는데, 저희들 윤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통상 사람이 죽어서 영이 언제쯤 다른 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들어가고 나면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스님: 반드시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된 도리를, 교훈을 잃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돈이 많이 드네 뭐 어쩌네 하고 찡찡거리고 애들을 데리고 이걸 어떻게 차리나, 뭐 어쩌나 하고 이렇게 성가시게 마음을 쓰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모신다면 조상님들도 싫어하시니까 웃는 낯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주 편리하게 하라고 합니다.

요새 기증 떡 둥그런 거 있죠? 옛날에는 모찌떡 큰 것 갖다가 세 켜놓고 꽃 한 송이 놓고 물 한 그릇 떠놓고, 향 세 개 피우고 초 켜고 나서 무릎 꿇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아니, 공짜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다 길러서 학교 공부 가르쳐서 사회인으로 길러주고 그만큼 노고를 했으면 그래도 은혜를 알아야죠.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상이 먹고자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제사 지내달라고 하는 조상 봤습니까? 나는 원칙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나라를 걱정할 때는 나라의 은혜를 생각할 때가 있고, 부모 생각을 할 때는 부모의 은공을 생각할 때가 있는 거고, 그런 때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자연을 볼 때는 자연의 은혜를 생각하고, 국민의 은혜, 돌의 은혜, 물의 은혜, 불의 은혜, 모두 있지 않습니까. 물의 은혜, 공기의 은혜가 너무 커서 때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갚으려면 정도를 생각해라, 이 세상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원리를 알아라. 그렇다면 한생각에 다 갚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위 법문은 1994년 6월 12일 울산 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분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기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디간과 직회 차크라계발, 에너지이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 본체, 녹색광인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펌사)
* 오라진동무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펌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펌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카다로그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마인드테크 : (02) 888-2142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5월은 십목의 계절입니다.
우리결혼할까요?
10년 노하우의 공든탑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불자 인연을 찾아 현대로 지금...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의 사람과
함께 할 수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위 치 안 내 ◁
1호선 부천역 하차 북부역쪽 광장 우측 첫번째 골목으로 200m정도 직진 희원오피스텔 202호
※ 방문전 전화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32)654-5411
연구실 : 032)346-5422
휴대폰 : 011) 288-2944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백과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백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희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1개월분 ₩150,000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후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전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걱차 없어집니다.
· 간후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후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